

# “학교폭력, 게임중독 사찰서 확 날려요!”

## 무안 봉불사, 6월 8~9일 청소년 명상캠프 진행

학교폭력과 게임중독 등에 노출된 아이들에게 불교적 치유를 실시하는 자리가 마련돼 화제다.

조계종 포교원(포교원장 지원)은 최근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마음등불’ 불교 명상캠프를 실시해 참가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무안 봉불사(주지 지오)는 6월 8-9일 1박 2일간 ‘청소년 마음등불’ 세부 프로그램인 ‘아하! 청소년 명상캠프’를 실시했다. 이날 명상캠프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스트레스 대처방법과 명상을 통한 소통과 대화방법을 체험했다. 특히 명상과 호흡, 에너그램 검사, 성격유형별 특징 이해하기, 오감명상, 바디스캔, 마음 작동 모델 설명, 불편한 경험담해하기, 수식관, 영상관법, 소통의 대화법, 소감 나누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행사에는 대부분 박사과정을 이수한 한국명상상담학회 강사진들이 참여해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치유방법을 도왔다. 주로 호흡과 마음의 안정을 찾는 방법을

청소년들에게 전달했다.

이날 캠프에 참가한 허주연(염암여고) 양은 참가소감에서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스스로 부족했던 점을 이번 캠프를 통해 알게 되었다”며 “명상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히는 방법을 연습하고 싶다”고 말했다.

봉불사는 2008년 청소년 명상 캠프를 처음 시작해 지금까지 12번에 걸쳐 지역 청

### 스트레스 치유방법 제공

### 친구들과 가족간 소통에 기여

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이날 프로그램도 봉불사만의 노하우가 담겼다.

전날 무안에서 오랜 기간 청소년, 학부모 명상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주지 지오 스님은 “명상을 통해 자신의 마음이 평온해질 때 가족과 친구들과의 고민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좋은 경험과 방법을 배워갔으면 좋겠



6월 8일 열린 ‘청소년 아하! 명상캠프’에서 지도법사 스님들과 함께 환호하고 있다.

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 마음등불’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종교계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이날 무안 행사에 이어 △의정부 총지선원 명상상담센터 6월 22-23일 △산청 맑은 명상상담센터 6월 29-30일, 7월 19-21일, 8월 2-4일, 8월 9-11일 △평택 마하연 명상상담센터 7월 5-6일 △부천 마인드힐링

명상상담센터 7월 27-28일 △광주 비로자나 명상상담센터 8월 2-4일 △제주 아란야 명상상담센터 8월 10-11일 △부산 행복한 명상상담센터 8월 24-25일 △서울 명상상담연구원 8월 31-9월 1일 △용인 마음명상상담센터 9월 7-8일 등 전국 각지에서 총 16회에 걸쳐 진행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군산 은적사 행복의 종 봉안 화제

### 행복 상징 777관 대형규모 조성, 1000여 불자 축원



6월 9일 타종식에서 테이프커팅하는 월주 스님(왼쪽 일곱번째) 등 내외 귀빈들.

군산 대표사찰인 은적사(주지 성우)에 국민들이 행복해지기를 염원하는 행복의 종 봉안됐다.

군산 은적사는 6월 9일 ‘종각준공 및 행복의 종 봉안법회’와 산사음악회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금산사 조실 월주 스님과 주지 원행 스님, 김백호 전북불교신문 회장, 문봉신 군산시장, 김관영 국회의원, 강태창 군산시장 등 1000여 불자들이 참석했다.

성우 스님은 경과보고와 인사말을 통해 “국민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불교와 깊은 인연이 있고 행운을 상징하는 777관으로 조성했다”고 말했다.

금산사 조실 월주 스님은 법어를 통해

“범종은 천상과 지옥의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울린다”며 “봉안된 행복의 종소리가 무간지옥의 중생들까지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설했다.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은 “은적사 행복의 종을 통해 자기 자신이 부처임을 깨달아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회에 이어 가수 김범룡과 소프라노 나유진, 전북지역의 4개지회 합창단이 출연하는 산사음악회와 경로잔치가 펼쳐졌다.

한편, 은적사 범종은 1924년 발행된 옥구군지(誌)에 옥구팔경의 하나인 설림모종(雪林暮鐘)으로 기록될 만큼 명물이었다.

조종제 전북지사장

## “청정한 수행으로 국민 감동을”

### 공불련, 금산사 성지순례 및 합동수계법회 회향



금산사 합동수계법회에는 40여 공불련 회원들이 참여해 스스로 돌아보는 참회의 시간을 가졌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김상인, 이하 공불련)는 6월 8-9일 1박 2일 일정으로 김제 금산사에서 제22차 성지순례법회 및 제13차 합동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 날 법회에는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을 비롯한 금산사 대중스님들과 전북도청 연우회, 김제시청 연우회,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이건설 김제시장 등 400여 명이 동참했다.

김상인 공불련 회장은 인사말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공평무사한 정책을 펼쳐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될 때 비로소 참다운 공무원 불자가 될 수 있다”며 “불퇴전의 신심과 정진의 힘을 모아 청정한 수행의 향기로 국민을 감동시키는 공직자가 되기를 서원한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입재식에 이어 신묘장구대다니 주력, 반야심경 사경, 참선등의 수행 정진시간을 가진 후 첫째날 일정을 마무리 했다. 또 설법전에서는 임원단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공불련의 활동계획과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다음날 새벽예불 후에는 108참회와 금강경 독경에 이어 금산사 조실 월주 스님으로부터 마미심선계를 수지하고 발원을 통해 삶의 의지를 새롭게 다지고 자기존재를 자각해 가슴마다 깨달음의 씨앗을 심어 성불하기를 서원했다.

한편 공불련은 해마다 공무원불자들의 신심을 높이고 회원상호간의 우의를 도모하기 위해 성지순례와 수계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조종제 전북지사장

## 영담 스님 탄신 100주년 기념 법회

### 선각종 초대종정... 종단차원 부도탑제작 결의

선각종 前 종정 정업 영담(1914~2011) 스님의 탄신 100주년 기념법회가 봉행됐다. 선각총림 강진 율천사(총무원장 정암)는 6월 11일 대웅전에서 2011년 열반하신 초대종정 영담 스님의 탄신 100주년 기념 다례식과 문화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정암 스님은 법어를 통해 “청빈한 삶을 사셨던 스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선각종도들이 늘 삶에서 실천하도록 하겠다”며 “그 가르침을 새긴 부도비를 제작해 많은 이들이 가르침을 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백양사 원응 스님을 비롯해 200여 대중들이 참여한 가운데 엄숙하게 봉행됐다.

한편 세수 98세, 법납 70세로 입적한 정



이날 추모다례제에는 200여 대중이 참여했다.

업 스님은 1914년 경남 통영에서 출생해, 1949년 백양사 만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하고 남원 대북사, 남원 실상사, 경남 안정사 선방에서 서경보 스님 등과 함께 수행 정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소외계층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 ‘눈길’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불교계의 다양한 문화행사가 눈길을 끈다.

광주외국인복지센터는 7월 10일 외국인 근로자 쉼터 기금 마련을 위한 음악회를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가수 안치환, 정률 스님 등이 출연해 불교포교의 사각지대인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전용공간 마련에 힘을 보탠다.

이주성 광주외국인복지센터장은 “평소 불교국가에서 온 근로자들에게 편한 공간을 제공하지 못해 아쉬웠다. 전용공간을 마련해 불자들이와 외국인 근로자들이 함께 소통을 하고 한국문화를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062)962-3395

이와 함께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본부(본부장 현지)는 6월 28일 오후 7시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 2층 공연장에서 ‘소아 암백혈병 어린이를 위한 생명콘서트’를 개최한다.

콘서트의 수익금은 어렵게 병마와 싸우며 힘겹게 삶을 지내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쓰여진다. (062)234-6602

또 순천시 불교사암연합회(회장 범일)는 순천시와 송광사, 선암사, 화엄사의 후원으로 ‘삶, 인생, 생령, Healing, 休’라는 주제로 6월 23일 오후 5시 국제정원박물관 동천특설무대에서 ‘해민스님과 함께하는 힐링콘서트’를 개최한다. (061)724-5988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故공옥진 여사 1주기 기념 나눔잔치

한국 유일의 1인 창무극의 대가였던 故 공옥진(1931~2012) 여사의 1주기를 맞아 지역 주민들을 위한 나눔잔치가 열렸다. 공옥진 여사의 외동딸인 김진희 씨(원효사 신도회장, 생명나눔실천광주전남본부 후원회장)가 이끄는 ‘공옥진 발차봉사대’는 6월 13일 사회복지법인 난원노인복지센터에서 공옥진 여사 1주기 추모 사랑의 점심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2012년 7월 세상을 떠난 공옥진 여사의 이웃사랑 마음을 잇고자 마련됐다. 김진희 씨와 원효사 신도회 회원들은 지난 1년 동안 영광지역에서 매일 점심봉사를 진행해왔다. 이날 행사가 열린 난원노인복지센터는 공옥진 여사가 2008년부터 치료와 요양을 하던 곳이다.

김진희 씨는 “생전 어머니로부터 배운



공옥진 여사의 외동딸 김진희 씨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웃사랑과 나눔정신을 계승하고자 한다”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관심을 보내 주신 영광지역 주민들에게 감사할 따름”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1주기 추모 나눔행사는 200여 어르신들이 참여해 푸짐한 음식과 문화공연을 즐겼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현대불교신문 · 미안마문화원 공동캠페인

# 자비의 미안마 돕기

## 행복한 나라, 미안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안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안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안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안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안마 극빈층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안마연방정부 추대 미안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맑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안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안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안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봉사도 지원 가능합니다.
- **신원 출가의식 지원**  
신원은 미안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행 행사이며 미안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원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피아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교는 미안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서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안마 문화원을 통해 미안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미안마문화원 상명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경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안마문화원